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행동 간 관계에서 부와 모애착의 조절효과

조미정¹, 김민주^{1*}, 김주영²

¹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²송헌여자중학교 전문상담

Moderating Effect of wealth and love in all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maladaptive behaviors of youth

Mi-Jung Jo¹, Min-Joo Kim^{1*}, Ju-Young Kim²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eimyung University BK21+ Training Center for Social Integration Expert

²Songhyun girls' middle school Counseling

요약 본 연구의 주목적은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D지역에 소재하는 H, G 고등학교 남·여학생 313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9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win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후 본 연구의 주 목적인 상호작용모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는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 애착은 조절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모 애착은 양적인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근거로 청소년 부적응 행동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the maladaptive behavior of the youth and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fath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in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maladaptive behavior. Utilizing SPSS win18.0 program for data analysis, after carrying out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a simple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model,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of both self-esteem and maladaptive behaviors of adolescents was significant in the negative direction. Second, father attachment showed no moder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aladaptive behavior of adolescents. Third, mother attachment played a quantitative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maladaptive behaviors of adolescent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lication to reduce youth maladaptive behavior in the base of these results.

Keywords : Father attachment, Maladaptive behavior, Mother attachment, Self-estee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 주역이므로 우리사회가 건

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시기 청소년들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과도기시기로 다양한 발달과업을 이루는 동시에 신체적·정신적·인지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특히 부

*Corresponding Author : Min-Joo Kim(Keimyung Univ.)

Tel: +82-11-802-3190 email: jo6190@kmu.ac.kr

Received June 8, 2015

Revised July 10,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2015

모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적 상황을 겪는 등 인간의 전 생애 중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청소년기에 요구되어지는 과업들을 적절하게 해결한 청소년들은 성공적으로 성인기를 맞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된다[32]. 청소년들에게 있어 청소년 비행 같은 부적응 행동은 주요한 반사회적 행동으로 비행 및 범죄 등과 같은 이상심리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되기도 하며[13],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자살 등 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34].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청소년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어 온 변인 중 하나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형성하고 지탱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로서 자기수용, 자기존중 등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11, 31].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함으로써 형성되기도 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모든 관계의 첫 출발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사회적 관계의 기초와 습관, 가치관 등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8]. 상호작용 과정 중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은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게 된다.

Kaplan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대안의 한 방법으로 이탈행동을 하거나 비행을 하면서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려고 한다. 이런 행동은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으로 전통적인 집단으로부터 배척받은 청소년들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적응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이 되는 것이다[23].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아동기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3].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와의 애착은 애착대상에 대한 행동과 상호작용은 줄어들더라도 부모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여전히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안, 심리적 안녕 등에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7].

신연희[33]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일으키게 하는 과정은 어머니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하면서,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경미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위험은 줄어들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최규하와 김민희[10]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아버지애착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 발달에 부모 모두의 애착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들 자아존중감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 관련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2, 5, 12, 16, 18, 21, 26, 35.], 부모애착을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을 분리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를 살펴본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4, 10, 15, 18, 22, 24].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부모 모두를 고려한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 간 영향력을 달리할 수 있는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이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영향력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되는 부와의 애착과 모와의 애착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검증한 후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개입전략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와의 애착에 따라 달라지는가?
- 연구문제 3.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와의 애착에 따라 달라지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 부적응 행동

부적응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적절하고 부조화를 이루는 상태로써 개인의 욕구, 감정 등이 사회적 규범에 용납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을 말하는데,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 펴낸 교육심리학 용어사전[25]에서는 부적응을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 부적응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행동으로 학교에서 잘 싸우거나 무단결석이 잦고 질투가 심하다던가, 잘 훔치는 등의 비행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환경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용납 될 수 없는 행동을 한다[6].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 단계에서 급격한 신체·생리적 변화 아울러 인지적 발달 및 심리적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 행동과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 행동에 더욱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중 과도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을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심리적 문제와 같은 우울, 불안 뿐 만 아니라,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역제가 결여되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비행 등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까지 포괄하여 정의한다.

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행동 영역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성격적 속성으로 환경, 사상에 의해서 통제되는 자기평가의 상태로 자신이 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이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는 자신을 좋은 인격자로 인식하여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데,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향이 있고, 손상된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열등감을 호소하거나 이러한 열등감을 위장하기 위해 사회에 반격을 가하는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16],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심리·환경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왔으며,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부적응 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청소년 자신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한 인지적 과정과 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3 부모와의 애착

애착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특정 개체에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관계로서 Bowlby[7]가 소아의 초기 발달과 모성결핍의 영향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발달 초기 영아와 주 양육자 사이 존재 하는 정서적 유대를 정의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표면적인 애착행동이 감소하지만, 부모와의 애착이 여전히 중요한 안정기지로 남아 있어서 위협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시에는 애착체제를 재 활성화 하고 부모애착관계에서 도움이나 심리적 안정을 구하게 된다.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은 자신감 및 자존감, 정서적 적응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 9, 3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 모와의 애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 하고자 하며, 부모와의 애착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로부터의 관심과 소통의 정도 및 의지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연구 목적에 따라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아래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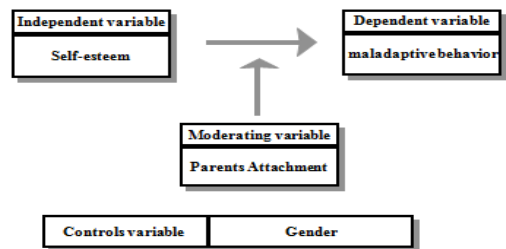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D지역에 소재하는 H, G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은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설문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남·여학생 313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하였거나 미완성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29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부적응 행동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부적응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Achenbach(1983)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Youth Self Report)를 오경자외 [30] 가 한국어판으로 개발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K-YSR은 자기보고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초점집단을 통해 K-YSR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8가지 요인의 118문항 중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25문항을 포함하는 내재화 문제 척도와 ‘비행, 공격성’30문항의 외현화 문제로 총 55문항을 사용한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 ‘가끔 그렇다’에 1점, ‘자주 그렇다’에 2점을 부여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로 나타났다.

3.3.2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7]가 번안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까지 4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전병제[17]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3.3.3 부모애착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Armsden 과 Green berg(1987)가 제

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IPPA-R)를 옥정[29]이 번안 수정한 자기보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부모애착 척도는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옥정[29]의 연구에서 부애착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93$, 모애착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애착 Cronbach’s $\alpha = .91$, 모애착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3.3.4 통제변수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의 영향에서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좀 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의 성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win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주요변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자아존중감)와 종속변수(부적응 행동), 조절변수(부모애착) 간의 관계에 관한 기초적인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주 목적인 상호작용모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청소년의 성별

본 연구는 D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여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은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이 53.5%, 여학생이 46.5%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Table 1. The subjects of Sex (N=299)

Variable	Frequency (persons)	Ratio (%)
Sex		
Man	160	53.5
Woman	139	46.5

4.2 성별에 따른 평균차를 통한 유의성 검증

조사 대상자의 부적응 행동, 자아존중감, 부 애착, 모 애착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부적응 행동은 평균 .49(표준 편차 .28)로 보통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 상에서 평균 2.57(표준편차 .46)로 보통수준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조절변수 인 모 애착과 부 애착은 5점 척도 상에서 각각 평균 3.32(.60), 3.49(.58)로 모두 보통수준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Table 2.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major variables (N=299)

Variable	Minimum	maximum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ladaptive behavior	0	2	.49	.28
Self Esteem	1	4	2.57	.46
father attachment	1	5	3.32	.60
mother attachment	2	5	3.49	.58

4.3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조절 회귀분석에 앞서 조사 대상자의 부적응 행동, 자아존중감, 부 애착, 모 애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모든 변수들에서 부적·정적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99)

Variable	Maladaptive behavior	Self Esteem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Maladaptive behavior				
Self Esteem	.479***			
Father attachment	-.455***	-.534***		
Mother attachment	-.452***	-.549***	.632***	

***p<.001

4.4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이 자아존중감이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 독립변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Model I 은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Model II는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으며, Model III은 조절변수인 부 애착과 모 애착을 투입하고, Model IV에서 조절변수인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여기서 통제변수인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 후 분석하였으며, 상호작용 변수는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변수를 센터링하여 표준점수로 변환한 후, 곱해주어 구성하였다.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에서 공차 한계(tolerance)가 .1이상, 분산팽창요인(VIF)은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1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에서 부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에서 부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델 I에서 통제변수 성별을 투입한 결과 성별이 부적응 행동에 양(+)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II는 모델 I에서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여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I에 비해 28% 더 설명하고 있으며(R²=.36),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에 음(-)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01(β=-.53)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III은 모델 II에서 부 애착을 추가하여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II에 비해 3% 더 설명하고 있으며(R²=.39), 부 애착은 부적응 행동에 음(-)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1(β=-.16)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에 음(-)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01(β=-.46)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IV는 모델 III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이다. 모델 III에 비해 1% 더 설명하고 있으며(R²=.40),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에 음(-)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01(β=-.80)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적응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 애착은 부적응 행동에 음(-)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5(β=-.6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부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부적응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절효과 검증결과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 애착이 상호작용하여 부적응 행동에 유의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4. Verification of parts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ttachment maladaptive behavior (N=299)

Variable	Maladaptive behavior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t	β	t	β	t	β	t
Sex ⁺	.30	5.44***	.19	4.01***	.18	4.07***	.18	3.93***
Self Esteem			-.53	-9.41***	-.46	-8.21***	-.80	-3.67***
Father attachment vibration-rotation interaction (Self-esteem × Father attachment)					-.16	-3.37**	-.61	-2.45*
R ²	.09		.36		.39		.40	
Adj. R ²	.08		.36		.38		.39	
F	30.40***		90.51***		66.63***		51.10***	
Durbin-Watson	1.85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male, comparison group: female

4.4.2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에서 모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의 관계에서 모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델 I에서 통제변수 성별을 투입한 결과 성별이 부적응 행동에 양(+)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II는 모델 I에서 자아존중감을 추가하여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I에 비해 28% 더 설명하고 있으며 (R²=.36),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에 음(-)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01(β =-.53)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III은 모델 II에서 모 애착을 추가하여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II에 비해 3% 더 설명하고 있으며 (R²=.39), 모 애착은 부적응 행동에 음(-)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01(β =-.18)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에 음(-)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01(β =-.4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IV는 모델 III에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이다. 모델 III에 비해 1% 더 설명하고 있으며

(R²=.40),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에 음(-)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01(β =-.89)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적응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 애착은 부적응 행동에 음(-)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1(β =-.68)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부적응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아존중감과 모 애착이 상호작용하여 부적응 행동에 양(+)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p<.05(β =.77)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 애착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Verification of parent attached regulatory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maladaptive behavior (N=299)

Variable	Maladaptive behavior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t	β	t	β	t	β	t
Sex ⁺	.30	5.44***	.19	4.01***	.21	4.54***	.20	4.32***
Self Esteem			-.53	-9.41***	-.45	-8.81***	-.89	-4.15***
Mother attachment vibration-rotation interaction (Self-esteem × Mother attachment)					-.18	-3.75***	-.68	-3.09**
R ²	.09		.36		.39		.40	
Adj. R ²	.08		.36		.39		.40	
F	30.40***		90.51***		67.54***		52.64***	
Durbin-Watson	1.92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male, comparison group: female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주목적은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이 지각

한 부와의 애착, 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 애착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선행연구들 [4,10,18]과 맥을 같이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 애착만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부적응 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자녀와 어머니가 영아기부터 초기애착이 형성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살피는 행동을 주로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양상이라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적응적 행동을 하도록 돕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이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각할 때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신체, 심리, 행동 특성의 많은 변화가 생기고, 부모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고민을 하며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갈등과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효과적인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청소년들 스스로도 긍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로 청소년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심성수련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인적 성장에의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대인관계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집단 속에서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자기를 돌이켜 보고 자아를 발견하며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 및 신념을 갖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으며 분노,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부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인식 명확성에 중점을 둔

개인 또는 집단 정서조절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애착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청소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정된 지역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기에 모든 청소년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되는 부모애착을 부와 모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에 대한 비교분석 및 청소년기 연령을 고려하여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 대한 비교분석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Ainsworth, M D.S., Blehar, M.C.,Waters,E.,&Wall,S.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1979.
- [2] Aunola, K., Stattin, H., & Nurmi, Jari-Erik.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school adjust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pp. 289-306, 2000.
DOI: <http://dx.doi.org/10.1023/A:1005143607919>
- [3] Bak huigyeong, Gwon gyeongin. "individualized parental attachment and separation of the elementary impact on Internet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Esteem", "cheongsoneonhak research", 19 (12), pp. 301-329. 2012.
- [4] Bak hyeonseon. Lee sanggyun. "protective factors of adolescent adjustment for the impact of flight Friend effect". Social Welfare, 37, pp. 399-427, 2008.
- [5] Bak youngran, yijuri, "self-esteem and self-esteemlevels of youth between the stability and aggressiveness", "Korea Society of childcare support" 7(2), pp. 61-79, 2011.
- [6] Bower,E.M.Early identification of emotionallydisturbed children school.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1970.
- [7] Bowlby, J.The nature of the child'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1958.

- [8] Brenden, N. "The power of self-esteem. Deerfield Beach Florida, Health communication. In G. W. Brwon, a, Bifulco, & Andrew. 1990. Self-esteem and depression: III. Aetiological Issu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5, 235-243. 1992.
- [9] Cassidy, J.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6-year-olds. Child Develop. 59, 121-134. 1998. idy, J.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6-year-olds. Child Develop. 59, 121-134. 1998.
- [10] Choi kyuha. Kim minhee "Effect of attachment of parents and middle school adapta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father attachment", "Korea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pp. 333-333, 2014.
- [11]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and Company. 1967.
- [12] Faulkner, G. E. J., & Adlaf, E. M. "The relationship between vigorous physical activity and juvenile delinquency: A mediating role for self-esteem?",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0(2), pp. 155-163, 2007. DOI: <http://dx.doi.org/10.1007/s10865-006-9091-2>
- [13] Gottfredson, M., & T. Hirschi.,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14] Harter, S.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N.Y.: John Wiley. 1983.
- [15] Han gibaek. "Students are a part of childhood percep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 esteem and adult attachment", "counseling research", 14(5), pp. 3065-3287, 2013.
- [16] Jang yeonsim. Joahmi.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behavioral problems in school maladjusted youth." Future Youth Association, 4(1), pp. 123-136, 2007.
- [17] Jeon byungje.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11, pp. 109-129, 1974.
- [18] Jin hyemin. Bae seongwoo. "Meta-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Youth Welfare", 14(2), pp. 193-221, 2012.
- [19] Jin hyemin. Bak byeongseon Bae seongwoo, "Informal stigma, self-esteem, depression, aggression impact on juvenile delinquency - focused on the path analysis," Youth Welfare Studies, 13(2), pp. 121-148, 2011.
- [20] Jwa hyeonsuk, Oh seunghwan,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changes and predictors of internalizing problems", "Youth Welfare", 13(4), pp. 119-147, 2011.
- [21] Kang hyewon. Kim Younghee. "depression and self-esteem levels of the meaning of life the impact on juvenile delinquency", calibration discourse, 5 (2), 27-50. 2011.
- [22] Kim suhui. Bak seongyeon. "parenting behavior of parent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sex, relationships between youth and peer attachment and attachments of a parent self-esteem", "South Korea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5), pp. 101-113, 2009.
- [23] Kim hyewon, "Youth of maladaptive behaviors relevant to refocus and self-esteem", "Future Youth Association", 6 (3), 1-22. 2009.
- [24] Kim hwayoung. "on the attachment of a marital conflict and parental perceptions of the children's parents internalizing problems and affect self-esteem",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9.
- [25] Korea Institute for Psychological Association, 『 Educational Psychology Glossary』, Seoul: hakjisa..2001.
- [26] Lee, J. M., Bell, N. J., & Watson, W. "Situating alcohol use and delinquency within developmental and societal context: The case of Korean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30(5), pp. 835-851, 2007. DOI: <http://dx.doi.org/10.1016/j.adolescence.2006.09.005>
- [27] Lee suh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the attachments of youth school adjustment",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28] Lee sukhui. "The Effect of Art Therapy in adults due to the improvement of social maladjustment behaviors adolescent attachment insecurity".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Art Forum. 10.86 to 98. 2012.
- [29] Oak jeong. "Depression and adolescent attachments and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in",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8.
- [30] Oh gyeongja. Lee hyereon. Hong gangui. Ha eunhye."Korean version of CBCL also proven useful in clinical questions through analysi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1), pp. 138-149, 1991.
- [31] Rosenberg, M. Self-concept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In J. Suls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elf, 3, Hillsdale, NJ: Erlbaum. 1986.
- [32] Seo dongjo, "is perceived childhood attachments impact on the youth of adolescent externalizing maladjustment,"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2014.
- [33] Sin yeonhui. "Self Esteem, juvenile delinquency, and research on the role of the mother", "Family and

Culture", 13(1), pp. 107-132, 2001.

- [34] Show, D. S., Gilliom, M., Ingoldsby, E. M., & Nagin, D. S., "Trajectories leading to school-age conduct problem", *Developmental Psychology*, 39, 189-200. 2003.
- [35] So seon suk,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gration models for school adaptation research." Economic University, PhD thesis. 2011.
- [36] Sroufe, I. A. Infant 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6, 41-81, Hillsdale, NJ: Erlbaum. 1983.

김 주 영(Ju-Young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졸업(교육학 석사)
- 2010년 2월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 2002년 1월 ~ 2012년 7월 : 대구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원
- 2013년 3월 ~ 현재 : 송현여자중학교 전문상담교사

<관심분야>
청소년 복지, 부모상담

조 미 정(Mi-Jung Jo)

[정회원]



- 2010년 2월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교육심리 석사)
- 2014년 2월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3년 12월 ~ 현재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연구원

<관심분야>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김 민 주(Min-Joo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 2013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사회복지학 박사)
- 2013년 12월 ~ 현재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지역사회통합인재양성사업단 연구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 정책